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강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힘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체성사의 제정은 최후의 만찬 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대축일은 삼위일체 대축일 전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성체 성혈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들에게 성사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으시는 일치 속에서 한 분으로 계십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서로의 사랑 안에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십니다. 그 내어줌은 너무나도 풍성하기에 당신 안에만 갇혀있지 않으시고, 흘러넘쳐 우리 인간 역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느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성자 하느님은 성체성사를 통하여 당신께서 취하셨던 육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이 내어줌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순례 중인 우리 하느님 백성에게 이 시대는 두려움을 주고 있고, 가톨릭교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나약함과 자신의 악습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와 악습, 코로나 팬데믹을 대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누구에게나 고통과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게다가 많은 이들이 자신의 아픔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기에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끌어안는다는 것은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어떤 분들은 제자들이 도망쳐 버렸듯이 도망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또 어떤 분들은 유다처럼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사랑은 나와 네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함께할 때, 서로 믿어주고 이해해주며, 상대를 지지하고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헌신하며 희생하고, 소통과 채워짐이 이루어집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백성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백 배 천 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힘은 사랑이며, 이 사랑은 삼위일체 하느님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요한 6,56)



김종원 하지노 신부 | 이주민 사목 담당



제 1 독 서	탈출 24,3-8
화 답 송	◎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제 2 독 서	히브 9,11-15
복 음	마르 14,12-16,22-26

주일 전례

몸과 지체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

몸과 지체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지체 모두가 자기만을 위하지 않고, 몸과 다른 지체를 위해 움직이며 활동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상할 때 최초의 동작이 무엇인가?

대개 기지개를 켜거나 화장실을 가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아니다. 최초의 동작은 '눈 뜨는 일'이다. 그 외 다른 동작은 눈을 뜨고 나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눈은 뜨고 싶겠는가? 아니다. 눈은 뜨고 싶지 않겠지만, 뇌의 작용으로 몸을 위해 뜨게 된다. 먼저 눈을 떠 수고해 주기에 몸의 다른 지체들의 동작이 가능하다. 또 마지막으로 눈을 감아야 잠을 잘 수 있다. 이처럼 눈은 보초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으나, 눈은 그중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몸이 천 냥이라면 눈은 구백 냥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지체는 무엇인가?

말할 것도 없이 손이다.

손이 먼저 움직여야 일이 시작되고, 또 손이 마무리해야 일이 끝난다. 그러면서도 손은 자기만을 위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자. 왼손의 장갑을 왼손이 낄 수 있는가? 못 낄다. 꼭 오른손이 끼워 주어야 한다. 그리고 오른손의 매니큐어(manicure)를 오른손이 바를 수 있는가? 못 바른다. 반드시 왼손이 발라주어야 한다. 손은 많은 일을 하지만, 결코 자기만을 위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

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지체가 있는데, 무엇일까?

그것은 발이다.

발은 언제나 가장 낮은 위치에서 육중한 몸을 짊어지고 다닌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더러운 곳도 밟아야 하고, 가시밭길도 가야 한다. 움직이는 동안 대부분을 신발 속에 갇혀 지내기에 냄새도 풍기며, 때로는 동상과 무좀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 결과 발바닥은 바늘로 찔려도 피가 나지 않을 정도의 굳은살로 덮여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몸이 발에 해 주는 일은 고작 신발과 양말 한 켤레뿐이다. 발 씻는 물과 발 닦는 수건도 깨끗하지 못하다. 그 래도 요즈음은 발의 소중함이 인식되어 발톱 손질과 함께 마사지도 하고, 로션도 발라준다.

몸의 지체들이 이러하데, 하물며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서 되겠는가?

우리가 속한 사회도 그러하다. 사회가 몸이라면 그 구성원인 우리는 지체들이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몸이라면 신앙인인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눈의 역할, 손의 역할, 또 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각자가 맡은 일에 충실할 때, 그 조직이 발전하는 것이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절대로 혼자 살 아갈 수 없다. 그런데도 협조나 봉사를 꺼리면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려는 분위기가 만연해 가니, 마음 아프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사람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누구나 무엇인가를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행복해지는 것이다.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

바티칸 추기경과 제인 구달의 대화: 인간 생존이 걸린 생물 다양성

김종훈 엠마누엘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지난 4월 20일 교황청 인류 발전부의 화상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화상 토론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의 영감 아래,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전 작업이었습니다. 실제 이 토론회는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유엔 환경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화상 토론회에 침팬지 연구로 유명한 동물학자 제인 구달이 참여하여 텍슨 추기경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토론회의 주제는 지구 전체의 생물 다양성과 생명 보존에 관한 것으로, 생물의 종의 소멸과 변이,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전체 생태계의 위기를 조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가톨릭 성직자와 영장류 동물학자의 대화는 생태계 보호를 위한 인류의 책임과 미래에 대한 인류의 무책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화는 현재의 인류가 기후 변화이든 팬데믹이든 변함없이 스스로 해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구달은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인류에게 유일하고, 아름다운 초록과 푸른 세상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름다운 행성의 가장 지성적인 피조물이 이 유일한 집을 파괴하고 있는가?” 질문합니다. 구달은 이 질문과 함께 환경 위기의 다양성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희망을 그림니다. 이 희망은 교황님의 권고로부터 젊은이들의 호응을 이끌며, 마침내는 과학 자체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변화는 지구의 생물 다양성을 직면하는 것으로 생태계와 생명의 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는 다섯 가지의 거대 멸종을 보았으며, 많은 과학자가 말하기를 여섯 번째 멸종이 근접해있으며, 그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약 8백만 종 중에서 백만 종이 이 세기에 멸종을 고할 것이며, 인류의 무분별한 훼손과 개발에 따른 기후 변화와 급속도로 퍼지는 다른 종들의 출현에 따라 이미 지구상에 현존하는 생물 종들이 급격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텍슨 추기경은 “오늘날 하느님의 창조 선물은 완전하게 파괴되고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추기경은 성경 안에 생물의 다양성은 하느님의 창조로부터 연유하며 인류는 자연을 돌볼 의무를 졌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지구의 근본적인 구성체인 각 식물과 동물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가치와 목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활동은 식물과 동물 종들을 멸종으로 치닫고 있으며, 인류는 “심각하고

엄청난 생태적 빛”을 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연을 멸망으로 이끄는 인류의 피해 비용은 경제적 이득보다 더 심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종이 멸종되거나 심각하게 훼손된다면 그것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추기경의 이러한 우려에 덧붙여, 구달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종의 멸종은 마치 아름다운 용단에 돌이킬 수 없는 구멍이 난 것과 같습니다. 이 구멍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커지고,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생태계라는 용단이 찢어져 형태도 알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달은 “우리는 매일 결정하는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사러 시장에 갑니다.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 봅시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 제품은 환경에 해로운 것인가? 그것들이 동물들에게 잔혹한 것은 아니었나? 불공정한 임금으로 인해 저렴한 것은 아닌가?’ 만약 이 모든 질문에 ‘예’라고 답한다면, 그것을 사지 말아야 합니다.”

구달은 생태 보존과 보전을 위한 미래 희망을 젊은이들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희망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서 찾습니다. “자연 보전에 관한 나의 희망은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있습니다. 교황으로서 그리고 전체 가톨릭교회의 수장으로서 환경에 대한 그분의 견해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티칸의 역할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훼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드러난 가난과 지구 생태 문제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드높이는 데 있으며, 아울러 생태학적인 시민정신과 생태적 회개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데 있습니다.

텍슨 추기경은 생태적 회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생태적 회개는 사고방식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생활 방식과 태도의 변화, 통제와 지배의 욕망으로부터 보호와 보전의 열망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류 모두를 위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길임을 확신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추기경은 더 나아가 “현재의 코로나 사태는 자연이 아프면, 인류도 아픔을 보여주는 경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추기경은 2009년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회칙 『진리 안의 사랑』에서 언급한 “인류가 환경을 대하는 방식은 인류가 인류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를 상기시키며, “인류의 건강은 자연에 달려있습니다. 자연이 병든 것은 그 원인이 인간에게 있으며 인간의 오염과 파괴에 기인하고 있으며, 인류는 이로 인해 수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휴전 그 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폭력의 악순환은 종식된 걸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휴전이 선언된 후, 거룩한 땅에서 자행된 “전쟁 행위와 폭력적 갈등”이 중지된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대화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휴전은 단지 폭력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딛는 작은 발걸음일 뿐입니다. 최근에 촉발된 이스라엘-가자 전쟁을 살펴보면, 여전히 예루살렘은 지속적인 갈등의 진원지입니다.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은 세 종교와 두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거룩한 도시의 그리스도교 교회는 최근의 폭력을 촉발하게 한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슬람교의 알 아크샤 사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부정과 그에 따른 샤이크 야라 지역에 대한 거주지 추방 정책이 그것입니다.

지난 5월 9일 예루살렘의 라틴 대주교좌는 “(이슬람교의 알 아크샤 사원) 순례자들에 대한 폭력은 그들의 안전과 성지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셰이크 야라 지역의 집으로부터 추방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강제 집행 역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용할 수 없는 폭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주교좌는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평화는 정의를 요구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스라엘인이든 팔레스타인이든 그들의 권리는 인정받지도 존중받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정의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거룩한 도시에는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계속되는 폭력적 갈등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도발은 이 갈등에 불을 지폈으나, 전쟁의 불꽃은 오랫동안 지속된 불의와 상대에 대한 체계적인 폭력, 그리고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평등과 점령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미국 주교회의와 유럽 주교회의 등 세계 유수의 주교회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역 교회와의 정기적인 연례 만남을 통해 깊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도시의 주교회의는 매년 이루어지는 이러한 연대 회의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시민들에 대한 계획적인 차별과 동 예루살렘,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점령지역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현실적인 갈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지속해서 표명했습니다. 이 지속적인 주교회의의 교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이해의 교량을 건설하고자 하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일단의 이스라엘인들의 용기 있는 행동 등을 증언했습니다.

이미 2008년 거룩한 도시의 주교회의는 분리와 점령에 따른 가혹한 결과를 세상에 알리는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선언문에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안전 보장을 담보하기 위해 세운 분리 장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장벽은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 간의 분리로 정의와 화해의 기회를 현저하게 약화하고 있습니다. 그 장벽은 가족의 이별과 팔레스타인 경제의 파괴, 인도주의의 위기를 가중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에 심각한 고통을 주는 상징입니다.

2018년 거룩한 도성의 가톨릭 주교들은 이스라엘 국회에서 통과된 헌법에 대해 “유대 시민들은 다른 시민들 위에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별의 법적 기초를 제공”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대신 주교들은 “그리스도교인, 이슬람교인, 유대인들이 평등한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법은 고용, 교육, 주거,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심각한 차별을 야기하는 법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아랍인은 엄청난 역사적인 연결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해 주는 야드 바셈(세계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나, 현재 가자지구, 서안지구에서 폭력적인 점령에 따라 고통받는 팔레스타인의 빈곤 가정으로서, 이 두 곳을 상호 방문함으로써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십 년간, 교황청과 미국 주교회의는 이스라엘이 독립적이고 실행 가능한 팔레스타인 자치를 평화적으로 인정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일단의 시각이 두 국가의 존립을 의문시하지만,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해결책은 체계적인 불의함을 해체하고 모든 이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거룩한 도성의 주교회의가 지난 2016년에 발표한 메시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권리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점령은 점령자나 피점령자 모두의 영혼을 쪼먹는 것입니다.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과 세 종교가 정의와 평화 안에 함께 살아갈 수 있기 위해 현재의 지속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최근 50년 동안의 점령을 종식하는 외교적 해결을 이끄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만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휴전 너머에는, 점령이 종식되고, 인권이 존중됨으로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일림



기억할 선종 사제

이응석(프란치스코) 신부

2010년 6월 8일

故 이응석 프란치스코 신부 11주기 추모미사

일시: 6월 8일(화) 11:00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문의: 남경철 신부 010·9514·0825

故 정삼규 요한 몬시뇰 22주기 추모미사

일시: 6월 15일(화) 11:00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문의: 정영규 신부 055·224·2009

▶미사 후 점심 식사 준비, 코로나19로 인해 버스 운행하지 않음

▶교구/본당

재무평의회

일시: 6월 8일(화) 10:00

장소: 교구청

지구별 구역분과위원장 모임

일시: 마산지구-6월 8일(화) 14:00, 교구청

창원지구-6월 11일(금) 14:00, 교구청

진주지구-6월 15일(화) 14:30, 신안동성당

거제지구-6월 18일(금) 14:30, 고현성당

문의: 사목국 055·249·7021~2

신학생 여름방학(광주가톨릭대학교)

일시: 6월 12일(토)

신학생 하계연수

일시: 6월 12일(토)~14일(월)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예신, 여성소 모임

일시: 6월 13일(주일) 13:30

장소: 교구청

▶기타

창원파티마병원 호스피스 기본교육

일시: 6월 23일(수), 6월 24일(목), 6월 30일(수),

7월 1일(목) 수, 목 13:30~17:30

장소: 창원파티마병원 5층 강당

교육비: 4만 원(신한 110-489-627950, 예금

주: 김정진)

문의: 창원파티마병원 은혜병동

055·270·1648, 270·1650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6월 13일(주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서울) 또는 비대면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010·3817·0567, columban.or.kr

제주 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일시: 6월 13일~16일(추)/ 6월 19일~21일/

7월 23일~25일/ 7월 30일~8월 2일/

8월 5일~8일/ 8월 12일~15일/ 8월 21일~23일

문의: 02·773·1463, 064·756·6009

한국평협 어머니학교 줌 온라인 강의 실시

일정: 6월 18일(금)~7월 9일(금)

매주 금 19:30~21:00(4주간)

대상: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강사: 조재연 비오 신부(햇살사목센터)

접수: 6월 11일(금)까지-햇살사목센터, 한국

평협 홈페이지

수강료: 4만 원(신한 140-006-356390,

예금주: 청소년의햇살)

문의: 햇살사목센터 02·744·0840

마산장애인복지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6월 답아보고서 '까치발' 영화 상영

일시: 6월 15일(화) 19:00

장소: 마로니에 카페 루프탑(마산합포구

완월서2길 8)

내용: 클래식 기타공연, 영화상영, 시네마토크

이야기손님: 김정옥(영화평론가)

신청: 전화 접수(선착순)

문의: 마산장애인복지관 055·247·5194~7

발달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지원하는 시민옹호 사업

사업명: 손옹이(손에 닿을 곳에 시민옹호인이 있다)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원하는날(미리연락)	원하는 곳	010·9353·1773(우 노아 수녀)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제주성지순례 3박 4일 32만원

성지 7개, 신부님 동행,
각 지역 공항 출발,
특2급 호텔

마르코 투어 010-5150-2625

마
산

예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제주성지 순례 3일/ 4일

6. 28.(월)~7. 1.(목)/ 7. 2.(금)~7. 4.(주일)/

7. 12.(월)~7. 14.(수)/ 7. 26.(월)~7. 29.(목)

■한국성지 167 완주

6. 18.(금)~6. 20.(주일) 춘천교구 3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일림

활동기간: 6월~12월/ 지원: 창원복지재단

모집대상: ▪마산거주 성인 발달장애인 7명,
▪발달장애인과 인권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7명

내용: 발달장애인과 시민옹호인이 1:1 매칭되어
다양한 활동 지원(예: 동네 카페가기, 도서관
회원등록하기 등 당사자가 원하는 활동 가능)

문의: 마산장애인복지관 손경희 055·247·5194

진해장애인복지관 파첸 합창단 피아노 반주자 (재능기부) 모집

일시: 매주 (목) 10:00~11:30(봉사 횟수 조정 가능)

장소: 진해장애인복지관

내용: 파첸 합창단 피아노 반주 봉사(재능기부)

문의: 합창단 담당 055·540·0440

▶소수 인원으로 연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역, 마스크,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성본당 제28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차형호(발다살)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홍성표(미카엘)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조숙경(글라라)

총무: 박범주(바오로)

기획분과위원장: 이형숙(세실리아)

전례분과위원장: 이회옥(릴리안)

복음화분과위원장: 김수경(올리안나)

가정사목분과위원장: 한선이(마리안나)

홍보분과위원장: 한상임(미카엘라)

구역분과위원장: 최미녀(모니카)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이경숙(아나니아)

청소년분과위원장: 유경희(모니카)

시설관리분과위원장: 강기운(베네딕토)

교구청 직원 모집

기획관리국에서 함께 일할 신입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 정규직 1명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 신부 추천서, 보유 자격
증 사본

접수: 6. 18.(금)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 혹은 방문)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 마산교구청 사무처(우 51727)

문의: 사무처 055·249·7019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

우리는 매년 6월 25일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간: 6월 17일(목)~25일(금)

•방법: 미사 전·후 및 매일 저녁 9시 기도문 함께 봉헌

•기도문: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톨릭 기도서 109쪽/
매일미사 191쪽)

•지향

6월 17일(목) -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회심을 위하여

6월 18일(금) - 북한과 미국, 남한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6월 19일(토) -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위하여

6월 20일(주일) - 경제제재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6월 21일(월) - 남과 북의 복음화를 위하여

6월 22일(화) - 이산가족과 탈북민들을 위하여

6월 23일(수) - 한반도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위하여

6월 24일(목) - 평화의 일꾼들을 위하여

6월 25일(금) - 한반도에서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체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예수성심성월 6월은 평화의 달

1 평화 아카데미

-일시: 6월16일(수) 19시
-장소: 마산교구청 강당
-주제: 비핵화는 잊으라, 평화의 실천, 종전을 선언하자
-강사: 김진형(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2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

-일시: 6월17일(목)~25일(금)
-매일 저녁9시 모두 함께
-가톨릭기도서 109쪽

3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

-일시: 6월25일(금) 19시
-장소: 마산교구청 강당
-주제: 하준수 신부(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강론: 이기문 신부(삼위일체수도회)



천주교마산교구민족화해위원회
(055-261-8201)

“나는 너를 먹고 싶다.”

수정 성모 트라피스트 수녀원

싱그런 녹음을 한껏 뿜어내는 6월의 생명력은 자연이 맺어주는 갯가지 먹거리로 우리 육신 생명이 이어지고 있음을, 그래서 자연과 우리는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된 불가분의 관계임을 절실히 느끼게 해 주는 고마운 달입니다. 또한 이 6월은 자연의 풍요로운 생명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느님의 자상하신 마음, 예수 성심 성월이며, 주님의 성체 성혈의 신비를 특별히 묵상하고 공경하는 은혜로운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분의 말씀이 있는데, 저희 수도원의 지도 사제이셨던 왜관 수도원의 독일인 故 장휘 엘마르 신부님께서 하신 강론 말씀입니다. 독일에는 젊은 연인들끼리 서로 주고 받는 말이 있는데, 상대방을 너무나 사랑할 때 그 표현을 이렇게 한답니다. “나는 너를 먹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의 절절함을 이만큼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물불 가리지 않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끌 수 없는 강력한 힘임을 잘 드러내 준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끼리의 사랑도 이토록 강렬할진대, 사랑의 원천이신 하느님의 사랑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마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기에는 너무나 굵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화근이겠지요?

더구나 요즘 세상의 넘쳐나는 온갖 풍요로운 물질과 엄청난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과학기술문명의 발달이 가져온 편리함은 하느님이란 존재,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믿음을 관심 밖으로 몰아내어 버리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세상 한가운데 오늘도 동트기 전 새벽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온 인류를 품고 가시는 성삼위 하느님의 그 사랑을 기도로, 온갖 사도직 활동으로, 거룩한 미사 성제로 이 세상에 퍼 나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하느님 현존의 가장 명백한 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느님께서 믿는 이들 안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며, 우리 모두를 당신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희망, 사랑이고요.

그 하느님 사랑을 이 땅, 이 세상에 끌어내리신 강렬한 사랑의 불가마, 예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완전히 먹히심으로써 당신이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나는 너를 먹고 싶다.”는 그 말씀을 실제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그렇게 당신께서 우리 각자와 온전히 하나 되고 싶어 하시는...

이번 예수 성심 성월에는 예수님 마음의 그 불타는 사랑을 자신들의 온 존재로 실어 나르는 사제들을 기억하며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 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 주소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로 말미암아 더 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